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06월 17일
(월요일)

동북일보 2면

강북구 3개단체 '2013 건강증진 한마음 체육대회' 열어

강북 발전과 체육 활성화 위해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이바지할 것 다짐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의 주최로 강북구생활체육회와 강북구체육회 등 3개 단체의 친선을 도모하고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3시 위동 키토산 산장에서 '2013 건강증진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다.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 개최되는 친선게임에는 박겸수 구청장, 박성열 의장, 최영호 강북구체육회 수석부회장, 이정식 생활체육회장을 비롯하여 3개기관에서 구의원들과 의회 직원들, 생활체육회 임원들과 지도자들, 체육회 이사들과 임원들이 각 단체를 상징하는 유니폼을 입고 참석해 리그전으로 피구와 족구시합을 하며 기량을 겨누면서 상호 교류의 장을 이어나갔다.

주최자인 박성열 의장은 대회사에서 "3개 단체의 화합과 단결, 건강을 기원하는 날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주고 의미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겸수 구청장은 "그동안 주민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즐겁게 지내면서 뜻 있는 날이 되자", 최영호 수석부회장은 "체육활동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한다. 스포츠 복지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행복이다. 복지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오늘날 스포츠 복지를 널리 활용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생활체육회장은 "아침부터 비가 내려 걱정을 했지만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금가루비와 같다. 날씨가 약간은 불편하지만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인사말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모두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몸을 풀 후



▲'2013 건강증진 한마음 체육대회'의 참석자들이 게임 전에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리그전에 돌입하였으며 한쪽에서는 준비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강북구의 발전과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서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